

# 광주 송학초 주변 각종 피해 갈등 봉합

###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로 소음·먼지 피해 우려 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열어 방음터널 설치 등 합의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로 광주 송학초등학교와 인근 마을에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우려하던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광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동화마을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나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송학초등학교와 주변 마을이 고속도로와 너무 가깝게 설계돼 소음 및 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됐다고 밝혔다.

광주 동화마을 등 인근 주민들은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 마을 앞에 약 10m 높이의 독이 들어서 조광권이 저하되고 소음·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방음터널, 방음벽, 저소음 포장, 교량화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해당구간을 터널과 교량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동화마을 등 인근 마을주민 2천 704명은 올해 3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6일 오후 광주시 대촌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광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회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총사업비 변경

협약이 완료되면, 송학초등학교 뒤편에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기로 했다.

세동마을과 동화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사유지)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포장하기로 했으며,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옆으로 연결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동마을 입구에 있는 교량(서창1교)을 늘리고 고속도로 인접 마을 진입로를 직선화하기로 했다. 용두동 구간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서창동 구간은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되, 과속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될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사동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해결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전남교육청 2018년 노사한미음체육대회 개최

전남교육청은 17일 해남우슬체육관에서 소속 지방공무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한미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광주·전남 수능 부정행위 10건 나와

### 무심코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제도 보완해야’

광주·전남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과정에서 모두 10건의 부정행위 사례가 나왔다.

18일 광주와 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치러진 수능에서 광주 6건, 전남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광주 2건, 전남 3건이었다. 광주에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4

건, 전자기기(휴대전화) 소지가 2건이었다.

전남에서는 응시방법 위반 2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1건, 휴대전화 소지 1건이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이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봤다가 무효처리 위기에 놓인 수험생

이 올해도 나왔다.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에서는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 과목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데 실수나 착오에 의한 사례도 나온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도 전국 부정행위 241건 가운데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3건(46.9%)건

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현장에서는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심코 시험지를 꺼냈다가 다른 과목 시험지가 함께 나오거나 착오로 다른 과목을 풀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한다”며 “뜻하지 않은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뭔가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사례별로 조사 내용을 통보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해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기사제보 227-0000

# ‘채용 사기·매점 운영권 비리’ 조선대 전 이사 등 징역형

조선이공대 교직원 채용 사기와 매점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조선대 전 이사 부 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이사 박모(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이자 조선대 전 이사 김모(60)씨와 조선이공대 전 총장 최모(6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중재 혐의로 최모(51)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매점 운영자 김모(5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과 최 전 총장, 매점 운영자 김씨 등 3명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김 전 이사에게는 추징금 2천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교법인의 업무 처리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저버렸고 최씨를 제외하고는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박씨는 피해자에

게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최씨는 사건 제보자로서 진실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면 조선대에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 7천 만원을 받아 채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과 최 전 총장은 각각 2014년 조선이공대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직접 돈을 받거나 연결해준 혐의로, 김씨의 일을 돕던 최씨와 매점 운영자 김씨는 뇌물을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는 당시 현직 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에서 최 전 총장의 선임에 도움을 준 점을 이용해 조선이공대 휴게실과 경비실 공간에 매점을 만들고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수조만명이다.

김 전 이사는 2014년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씨 등에게 현금 1천 만원을 받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았다. /유규진 기자 jin2001@

# ‘네 다리에 심한 화상’ 강아지...경찰, 확대의혹 수사

네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광주 남구 한 상가건물에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가 있다는 행인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이 강아지는 네 다리가 까맣게 그을리고 살갗이 벗겨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견주인 A(85)씨는 “5일 전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 같다”며 “그동안 약을 발라주는 등 치료를 해주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의엄마(미미)’에 넘겨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패혈증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찾고 있다. /유규진 기자 jin2001@

# “정치자금법 어겼다”...광주서 주민이 구청장 고소

광주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주민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현직 구청장 A씨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소인 B(72)씨는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였던 A씨가 취업알선 비 성격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수

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실로 문봉치를 싸 들고 온 B씨에게 정상적인 후원 절차만 알려주고 돌려보냈다”며 “당선된 이후 자녀 취업 등 B씨의 청탁이 이어졌는데 모두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승현 기자

## 1004년 신안

### 여주

친환경무농약으로 재배하여 당뇨와 혈압개선, 항암효과에 탁월한 건강식품

### 양파

신안의 게르마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고혈압, 동맥경화,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품

### 무화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체내 독소제거 및 빈혈에 효과적인 여왕의 과일

### 땅콩

비타민 B와 E,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필수 지방산인 불포화산이 풍부

### 신안심초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비타민과 철분, 칼슘이 풍부